

# 11억 다산 캐릭터...“두번 바가지 없다”

‘청차 바가지’에 테인 강진군

고가 개인 상표권 매입 거절

군의회 의장·언론사 관여 정황

지난 2009년 ‘10억원대 강진청차 바가지 사건’이 벌어졌던 강진에서 태어난 ‘다산 캐릭터 바가지 미수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산 캐릭터를 형상화한 상표권(사진)을 가진 군민이 강진군과 상표권 매매 협상을 진행하며 10억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당사자는 “강진군이 먼저 상표권 판매를 제안해와 가격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상표권 주인이 강진지역 언론사와 군의회를 움직여 군청에 상표권 바가지를 씌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강진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부터 강진지역 자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문모씨와 상표권 매매 협상을 시작했다. 문씨가 보유한 ‘강진 다산 조형’이라는 상표권을 군이 넘겨받기 위한 절차였다. 해당 상표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한복을 입고 엄지척을 하는 그림 아래 ‘강진 다산 조형’이라고 쓰여있다.

군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조선 후기 실학



자 정약용 선생 정신과 문화를 기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상표권 매수 작업을 추진했다. 군이 지난 2019년 말 제정한 ‘다산문화 진흥 기본 조례’에는 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다산 관련 상표등록·실용신안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다산정신 실천·문화진흥 등 6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협상은 곧 종료됐다. 상표권 소유자 문씨가 판매가를 11억원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군을 대리해 협상에 나섰던 군 산하 사업소 다산 박물관 측 관계자는 “상표권 가격 자체가 워낙 비

싼 데다 군청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은 상표권 소유자 문씨의 부탁을 받고 군이 상표권 매입에 나서도록 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문씨의 요청을 받고 위 의장이 직접 군청 직원과 다산박물관 측에 “(문씨가 보유한) 상표권을 박물관이 매입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 의장은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상표권 매매 주선을 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문씨가 11억원이라는 고가를 부를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강진지역 일부 언론사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문씨가 소유한) 상표권을 군청이 구입해야 한다. 이렇다 타 지역으로 상표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표권 소유자 문씨는 “11억원이라고 군청에 가격을 제시한 것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 가치가 17억원이라는 판결이 나와 최종 10억원에 조율됐다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보고 착안한 것”이라며 “거창 국제연극제보다는 다산의 가치가 높다. 자존심 상 1억원을 더 올려 11억원으로 결정하고 성사될 시 1억원을 군청에 기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기자 노트

### 힘겨루기 ‘의사당’ 안에서 풀어나



김용기 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집행부와 의회간 힘겨루기 기하는 모습이 불쌍 사납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 266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불거진 감정의 골이 20여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의회 A의원이 정종순 군수를 상대로 한 폭로성 질문이 SNS상에 유포된 것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A의원이 정종순 군수에게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혹 제기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집행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다.

군은 홍보부서에서 나서 A의원의 ‘SNS상의 유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배포한데 이어 장흥군공무원노조 명의로 ‘장흥군의회 A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공개사과하라’라는 플래카드 10개를 읍·면 곳곳에 붙였다.

이에 뒤질새라 A의원은 지난 3월에 지급한 선별적재난지원금 과정에서 일부 종교단체가 상품권을 차량수리비로 부당 사용한 근거(녹취록)를 폭로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의회와의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려 했고, 허점이 많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며 맞받아쳤다.

하지만 군민들은 집행부와 의회간 쟁탈전 싸움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티격태격 싸우는 꼴이 지겹다는 것이다.

장흥군은 그동안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 1991년과 30년 전인 올해 장흥군 예산은 349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5배 가량 늘어났다. 공무원 수 역시 같은 기간 600명대에서 1300명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장흥군의 이러한 변화에 놀라기도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단체장과 의원들이 감정과 불통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다. 올해로 지방자치 시대 30년을 맞았는데도 장흥군 지방자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라도 단체장과 의원들은 명분없는 감정싸움을 그치고, 남은 1년 동안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kykim@kwangju.co.kr

## 화순군민문화센터 수영장

내달 6일 다시 문 연다

동시간대 입장 65명 제한

시설 개보수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을 중단했던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사진)이 내달 6일부터 다시 운영한다.

최근 지역사회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조치로 군은 수영장 입장 인원을 동시간대 65명으로 제한하고 강사와 강습생의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당분간 강습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자유수영만 가능토록 했다.

1일권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자, 호흡기 유증상자, 화순군 외 타 지역 주민, 14일 내 해외입국자 등은 시설 입장이 제한된다.

백신 2회 접종 후 2주일이 지난 군민은 입장 인원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회원 등록 후 코로나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군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2일까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 화순군 관계자는 “방역을 철저히 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나주시 지역화폐 발행액 700억원 돌파

역대 상반기 최고 판매 기록

나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지역화폐 판매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나주시는 6월 현재 ‘나주사랑상품권’ 판매액이 700억원 대를 돌파한 704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상반기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매 규모는 작년 한 해 누적 판매액 836억원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폭발적인 만큼 늘어난 상품권 판매액은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주는 ‘상품권 10%할인 제도’ 기한 연장 시책이 전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대 액면가 70만원까지 구매 가능한 상품권은 10% 할인율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64만원만 결제하면 살 수 있다. 상품권 이용자들 사이에서 ‘구매 할수록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구매를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 보완을 위해 도입한 앱(App) 방식의 전자형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 보급을 비롯해 가맹점 늘리기, 상품권 장보기 캠페인 등도 이용률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당초 6월 말로 예정된 상품권 10% 할인판매 기한을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담양군 ‘선배 공직자 기록물 기증 캠페인’

업무일지·수첩 등 기록자료 대상

담양군이 군정 역사를 기억·보존하고, 미래세대와의 지속적인 기록 공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배 공직자 기록물 기증 캠페인’을 추진한다.

‘담양의 행정역사가 담긴 서랍 속 옛 기록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한 캠페인은 전직 공직자가 제

직 당시 생산, 입수한 행정기록물을 수집해 기록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기획됐다.

기증대상은 전직 공직자 및 가족이 소장하고 있는 업무일지, 수첩, 봉급명세서, 사진, 영상, 공무원증, 발령장 등으로 담양의 행정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기록 자료다.

기증 의사를 지닌 전직 공직자는 기증신청서를

작성해 7월 30일까지 읍면 사무소 접수창구를 통해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증된 기록물은 선별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기록관 서고에 보존하고, 향후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정 발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공직생활을 하셨던 선배 공직자의 활동이 담긴 소중한 기록을 군의 역사를 조명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기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전남 관광지 홍보전 장성 ‘옐로우 매력’ 발산

사계절 꽃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옐로우 시티(Yellow city) 장성군이 지닌 매력이 전남 관광지 홍보전에서 한껏 발산되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7월11일까지 (주)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가 수록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는 ‘전남 관광 홍보 전시회’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사·도민에게 전남의 여름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신세계가 전시공간과 설비를 지원했다.

장성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 황룡강과 치유 여행지로 각광받는 장성호 홍보영상을 마련해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여기에 축령산 편백 향기와 황룡강 야생화·꽃차를 직접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전시 이벤트도 준비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전시회 자리에 황룡강 꽃과 장성호 수변길, 편백숲 등 장성이 품은 ‘정정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오는 7월4일 예정된 2차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손해보험협회**

**든든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